

보건계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 소명의식, 일의 의미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재용 · 박주영 · 우정희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Career Attitude Maturity, Calling, and Work as Meaning Affecting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among Health College Students

Yoo, Jae Yong · Park, Ju Young · Woo, Chung Hee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among students in health colleges (Nursing, Clinical Pathology, Radiology, Dental Hygienics, Medicine).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61 students in Daejeon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5 to October 14, 2014.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an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WIN program. **Results:** Career attitude maturity, calling and work as meaning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were career attitude maturity, calling, always working part-time, major in medicine and average grade for the last semester.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djustment to college for students in health colleges is linked to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lling. College organization should develop a curriculum fostering a calling which will promote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and graduate health care professionals with desirable attitudes.

Key Words: Career attitude maturity, Calling, Work as meaning,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Stud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영위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직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 직업은 사회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지향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이

며 자아실현을 위한 핵심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자아개념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며, 직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한다[1].

진로와 직업선택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대학생들이 순수하게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닐 것이다.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나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한다면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2]. 진로선택을

주요어: 진로태도성숙도, 소명의식, 일의 의미, 대학생활적응, 대학생

Corresponding author: Woo, Chung Hee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158 Gwanjeodong-ro, Seo-gu, Daejeon 302-832, Korea.
Tel: +82-42-600-6432, Fax: +82-42-600-6314, E-mail: createjane@konyang.ac.kr

Received: Jul 17, 2015 | Revised: Aug 12, 2015 | Accepted: Sep 24,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진로태도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일에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이다. 이는 단편적인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인생 전반에 걸쳐 진로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연령대별로 기대되는 진로행동이나 진로 관련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포함하는 장기적이고 다면적인 과정[1]일 수도 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고서도 적응하지 못하여 조기 퇴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성숙한 진로태도는 대학이 관심 가져야 할 덕목으로 생각된다.

성숙한 진로발달 행동을 지향하는 길 중 하나가 일에서 목적과 의미를 찾고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3]. 종교적인 관점에서 일은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소명이란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점차 소명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의 일에 충만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헌신을 하게 하는 목적의식인 동시에 일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로 받아들여져 왔다[4,5]. 일반적인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소명의식은 개인 내에서 발생하여 자신 또는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형태로 발현되며[6],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업과 진로에 대한 몰입, 열정과 만족도가 높으며 직업 관련 의무행위에 수용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7-9].

서구사회에서는 소명을 일의 의미와 거의 유사한 맥락에서 인식하므로 진로나 직업 관련 논의에서 동일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10]. 그러나 일 국내 연구[4]에서는 소명의식의 하위 영역이었던 일의 의미가 다소 종교적인 관점이 강한 다른 영역에 비하여 특히 진로요인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이 일의 가치를 다양한 업무수행, 사회기여, 자율성과 같은 내재적 가치보다는 시간적 여유, 쾌적한 근무환경, 높은 보수, 안정성 등의 외재적 가치에 더 비중을 둔다는 결과도 있었다[1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소명의식과 일의 의미가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일에 대해 충만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헌신을 하도록 하는 목적의식으로서의 소명의식을 탐색하고자 하는 경우, 직무로서의 일, 성공과 인정욕구가 동기화되는 경력으로서의 일을 반영할 수 있는 일의 의미를 분리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면 보건의료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점은 진로선택 시 직업의 외재적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일 수 있다[12]. 보건의료 직업의 특성상 일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외재적 가치에 의해 진로를 선택했을 경우 학교생활 중에는 자기 전공 영역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여[13], 전공불만족이나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취업 후 낮은 직무만족과 몰입 혹은 이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게 된다. 소명의식은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 직업목표 및 진로개발 등 진로 관련 특성[14,15]과 전공 및 학업에 대한 만족도[13,15]에도 긍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선행 연구의 결과를 전공이나 문화가 다른 국내 보건의료 대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환경에서 보다 정교한 평가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명의식과 일의 의미를 진로태도성숙도와 함께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된 국내 보건의료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요인으로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학생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미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 일에 대한 몰입과 만족도 증진 전략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할 때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 소명의식, 일의 의미 및 대학생활적응수준을 파악한다.
-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 소명의식, 일의 의미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진로태도성숙도, 소명의식, 일의 의미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D시 일 대학 보건의료 학생 261부를 비확률 편의표집 하였다. 대상자는 기본적인 전공기초와 교양과목을 통해 직업 관련 가치관을 통합적으로 다져가는 1, 2학년 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본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대상자 표본 수 산출방법인 G*Power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제 1종 오류 $\alpha = .05$, 검정력 80%, 회귀분석을 위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effect size)는 0.15, 독립변수 11개를 고려하면 최소 필요 표본 수는 123명이다. 이를 근거로 3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65부가 회수되었고 응답내용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4부를 제외한 261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4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연구자 또는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대상자를 만나 연구목적, 설문지 및 동의서 작성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각 연구대상자들은 자가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작성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3.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기관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KYUH 2014-10-004). 연구대상자 선정 시, 수집된 내용을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진행 중 자발적인 참여와 중단이 가능하며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와 익명성 보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연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총 130문항으로 소명의식 4문항, 일의 의미 10문항, 진로태도성숙도 45문항, 대학생 활적응 64문항 및 일반적 특성 7문항을 포함하였다. 최종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와 유사한 학생 6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가 어렵거나 질문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한 문항에는 원문 및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확정하였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연구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로태도성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을 자신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함께 일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귀인 시키는 책임감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1] 진로태도성숙도 도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5가지 하위영역의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와 각 하위차원에 대해 높은 성숙 수준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는 .87,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 소명의식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을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개인적 충만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헌신을 하도록 이끄는 목적의식으로 보고, 대상자들의 소명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고 [16] 한국어판으로 번안된[6] 간편 소명척도(Brief Calling Scale)를 사용하였다. 소명존재와 소명추구의 2개의 하위영역, 각 2문항 총 4문항이며, 4점 Likert척도로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1점)에서 전적으로 해당된다(4점)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6]의 Cronbach's α 는 .87,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3) 일의 의미

본 연구에서의 일의 의미는 특정한 일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고, 일과 관련된 활동을 더 넓은 삶의 목적과 의미로 연결하여 일을 통해 의미충만함을 느끼고 자신의 성장과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았다[17]. 본 연구에서는 처음 개발된[17] 일의 의미(Working as Meaning Inventory)를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척도[18]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주로 일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측정하며, 3개의 하위영역인 긍정적 의미, 일을 통한 의미 만들기, 공공의 선을 위한 동기 영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는 .93,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4)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을 대학생회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19]. 대학생활의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20] 대학생 활적응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를 한국어판으로 수정한 도구[19]를 선택하였다. 개발당시 도구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및 대학환경적응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총 67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거주형태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3개 문항(22, 26, 33번)은 제외한 64문항의 선행연구[19]와 동일한 도구를 적용하였다. 선행연구[19]에서 Cronbach's α 는 .94,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소명의식, 일의 의미, 대학생활적응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들의 진로태도성숙도, 소명의식, 일의 의미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총 261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19.5±1.04세, 학년은 1학년(58.2%)이 2학년(41.8%)보다 다소 많았다. 성별은 여학생이 192명(73.6%)으로 남학생 69명(26.4%)보다 많았고 전공은 간호학도가 110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이 자신의 학과를 지원한 동기는 직업적 가치 117명(44.8%), 적성과 흥미 69명(26.4%), 주변의 권유 49명(18.8%), 성적에 맞추어서 지원한 대상자가 26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학기 성적은 상 58명(21.2%), 중 141명(54.0%), 하 62명(23.8%), 가정형편은 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5명(9.6%), 중 214명(82.0%), 하 22명(8.2%) 수준이었다. 아르바이트에 있어서는 전혀 하지 않는 대상자 106명(40.6%), 방학 중에만 하는 경우가 85명(32.6%), 학기 중을 포함한 지속적으로 하는 대상자 40명(15.3%) 및 목돈이 필요할 때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상자가 30명(11.5%) 수준이었다. 꾸준히 종교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1명(15.7%) 수준이어서 거의 활동을 하거나(28.7%), 종교가 없는 경우인 145명(55.6%)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6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19.5±1.04
Gender	Male	69 (26.4)
	Female	192 (73.6)
Major	Nursing	110 (42.1)
	Clinical pathology	60 (23.0)
	Radiology	27 (10.3)
	Dental hygienics	38 (14.6)
	Medicine	26 (10.0)
Year	1	152 (58.2)
	2	109 (41.8)
Grades for last semester	High	58 (21.2)
	Average	141 (54.0)
	Low	62 (23.8)
Motive for selecting major	Value of the profession	117 (44.8)
	Advice of close people	49 (18.8)
	Grades	26 (10.0)
	Aptitudes/interests	69 (26.4)
Parent economic-status	High	25 (9.6)
	Average	214 (82.0)
	Low	22 (8.4)
Type of part-time work	Always	40 (15.3)
	During vacation only	85 (32.6)
	When allowance runs out	30 (11.5)
	None	106 (40.6)
Religion	Steady activity	41 (15.7)
	Almost no activity	75 (28.7)
	None	145 (55.6)

2. 진로태도성숙도, 소명의식, 일의 의미 및 대학생활적응 수준

대상자의 진로태도성숙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7±0.27점, 소명의식의 평균은 4점 만점에 2.65±0.67점이었다. 일의 의미는 5점 만점에 3.57±0.50점이었으며 대학생활적응 평균은 3.10±0.4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 Scores for Major Variables of Participants (N=261)

Variables	M±SD
Career attitude maturity	3.27±0.27
Calling	2.65±0.66
Work as meaning	3.57±0.50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3.10±0.4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3), 대상자의 전공, 학년, 지난학기 성적, 학과지원동기, 가정형편, 아르바이트형태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의학과가 간호학과나 치위생과에 비해($F=3.48, p=.009$), 1학년($F=2.10, p=.036$), 성적이 상인 경우($F=4.48, p=.012$), 직업적 가치보다는 적성과 흥미가 있어 학과를 지원한 경우($F=3.66, p=.013$), 가정형편이 좋을수록($F=4.80, p=.009$), 아르바이트를 적게 할수록($F=2.83, p=.039$) 대학생활적응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진로태도성숙도, 소명의식, 일의 의미,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을 진로태도성숙도, 소명의식, 일의

의미와의 상관관계로 살펴보았을 때, 진로태도성숙도($r=.50, p<.001$), 소명의식($r=.42, p<.001$), 일의 의미($r=.40,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5.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하였던($p<.05$) 전공, 학년, 지난학기성적, 학과지원동기, 아르바이트 형태, 소명의식, 일의 의미, 진로태도성숙도를 포함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잔차의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 자기상관성 및 다중공선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잔차의 정규 P-P도표, 산점도, Durbin-Watson (D-W)통계량,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IF)를 분석하였다. 잔차가 45도 직선에 근접한 정규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잔차의 부분산점도가 모두 0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D-W통계량은 1.88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의 위험이 비교적 없음을

Table 3. Differences in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by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261)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3.19±0.48	2.06 (.040)	
	Female	3.07±0.37		
Major	Nursing ^a	3.06±0.40	3.48 (.009)	a, d < e
	Clinical pathology ^b	3.11±0.43		
	Radiology ^c	3.08±0.39		
	Dental hygienics ^d	3.03±0.31		
	Medicine ^e	3.37±0.41		
Year	1	3.15±0.41	2.10 (.036)	
	2	3.04±0.38		
Grades for last semester	High ^a	3.23±0.48	4.48 (.012)	a > b
	Average ^b	3.06±0.37		
	Low ^c	3.08±0.36		
Motive for selecting major	Value of the profession ^a	3.06±0.37	3.66 (.013)	a < d
	Advice of close people ^b	3.10±0.27		
	Grades ^c	3.00±0.46		
	Aptitudes/interests ^d	3.23±0.48		
Parent economic-status	High ^a	3.30±0.53	4.80 (.009)	a > c
	Average ^b	3.10±0.39		
	Low ^c	2.94±0.26		
Type of part-time work	Always ^a	2.95±0.40	2.83 (.039)	a < d
	During vacation only ^b	3.10±0.35		
	When allowance runs out ^c	3.11±0.48		
	None ^d	3.16±0.41		
Religion	Steady activity	3.10±0.33	0.80 (.426)	
	Almost no activity	3.05±0.39		
	None	3.13±0.43		

확인하였고, 공차는 0.86에서 0.99이며, VIF는 1.00에서 1.19의 범위에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37%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태도성숙도, 소명의식, 연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의학과, 지난 학기 성적에서 중인 경우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대학생은 미래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와 취업 등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시기에 따른 발달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있어 대학생활 적응문제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평가함에 있어 학업과 같은 일부분에 국한하기 보다는 다면적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고용불안 등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보건계열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일 또는 직업적 가치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인 보건계열 대학생이 인지하고 있는 진로태도성숙도는 3.27 ± 0.27 점, 소명의식은 4점 만점 기준에 2.65

± 0.66 점, 일의 의미는 3.57 ± 0.50 점, 대학생활적응 수준은 3.10 ± 0.40 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명의식을 확인한 일부 연구[4,6,14]가 있기는 하지만 대상자의 소명의식정도를 독립적으로 제시해주지는 않고 있어 이들과의 비교는 불가능하였다. 직장 성인 128명을 대상으로 소명의식을 살펴본 연구[21]의 5점 기준 3.68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직장 성인과의 비교이므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의학과 예과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입학 오리엔테이션과 본과 승급 전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통한 종단적 연구를 시행한 연구 [14]에 따르면 소명의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의학교육에서 학업성취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며, 소명의식이야말로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인성이므로 소명의식을 형성시키고 유지시키는 방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한 점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의 의미는 4학년 99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의 5점 환산 시 3.75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나 본 연구대상자는 1,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될 수 없었다. 졸업이 가까워지는 학년일수록 일에 대한 구체적인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본 대상자의 진로태도성숙도는 3.27점으로 전공 구분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대학생 519명이 보여준 2.30점[23], 간호대학생 3.45점[24]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보건계열 전공자들은 진로선택과정에서 태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성

Table 4.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N=261)

Variables	1	2	3	4
	r (p)	r (p)	r (p)	r (p)
1. Career attitude maturity	1			
2. Calling	.39 (< .001)	1		
3. Work as meaning	.42 (< .001)	.60 (< .001)	1	
4.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50 (< .001)	.42 (< .001)	.40 (< .001)	1

Table 5.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on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N=261)

Variables	Model		
	β	t	p
Career attitude maturity	.38	7.08	< .001
Calling	.25	4.60	< .001
Part-time work (always)	-.15	-3.08	.002
Major (medicine)	.14	2.75	.006
Grades for last semester (average)	-.10	-2.04	.042
$R^2 = .37$, Adj. $R^2 = .35$, $F = 29.39$, $p < .001$			

숙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활적응 수준은 404명의 대학생 대상연구[13]의 3.05점보다는 높은 3.10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생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인 진로문제가 대학생활적응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13]하는 점에서 보면 보건계열전공자인 경우 진로가 어느 정도 확실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대학생활적응을 보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남학생, 1학년, 지난학기성적이 보통에 비해 상이라고 지각된 경우, 전공선택동기가 직업적 가치보다는 흥미나 적성인 경우, 가정형편이 좋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때로 나타났다. 자신의 의지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 전공만족도가 더 높았고,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에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 [25], 학업적 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r=.56$ 이라는 높은 상관성[13]을 보여준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일관성 있게 지지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신입생이 학교생활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간호학과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량과 전공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면과 가정형편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학업몰입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한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진로태도성숙도, 소명의식, 일의 의미와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서구 대학생들이 소명의식과 일의 의미를 유사한 맥락에서 인식하고 진로선택에 나타나는[10] 반면, 국내 대학생들은 소명의식의 하위영역인 초월적 부름($r=.15\sim.19$), 친사회적 지향($r=.16\sim.19$)에 비해 일의 의미는 진로 관련 변인들과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성($r=.39\sim.42$)을 보인 근거[4]를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과 일의 의미를 각각 독립적인 변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상자들의 소명의식과 일의 의미는 진로태도성숙도와 각각 $r=.39$, $r=.42$ 로 비교적 높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소명의식이 진로 관련변인에는 유의미하지 않다[4]는 결과보다는 일의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일의 의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주고[21], 소명의식이 의학과 학생의 진로 내 발달과업을 의미하는 직업적 발달과도 중등도의 관련이 있음을 [14] 더 지지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다양한 인종과 전공의 3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 소명의식은 학업 만족과 중등도의 직접적인 양의 상관성뿐만 아니라 일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소명의식이 높은 학생들이 진로 역량을 개발하고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역경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를 하는 경향이 높

다[26]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명의식 증진 전략을 모색하고 교육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식적인 측면에서 전공심화가 이루어질수록 직업에 필요한 소명의식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예상과 달리 약화될 수도 있으므로 [14] 꾸준히 증진될 전략도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 소명의식, 아르바이트 형태, 학과 및 지난학기성적 요인이 대학생활적응을 37%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진로태도성숙도와 소명의식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는 전공과 직업이 거의 동일시되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에는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진로의 목적성과 확신정도가 중요함을 시사한 것이라 사료된다. 즉 사회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해도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관을 충분히 탐색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학 전공을 선택한다면 대학생활에 보다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명의식은 다양한 직업 종사자 직무만족을 높이고,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요인인 감정노동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27,28]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는 보건계열 역시 학생선발을 위한 면접 시, 전공 관련 가치 명료화나 소명의식을 잘 갖춘 자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도구나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한다면 훌륭한 인성을 갖춘 전문가 양성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동시에 대학생활적응이 낮은 보건계열 대학생에게 소명의식을 일깨워주고 강화시켜주고자 하는 노력이 대학 교육과정이나 활동에 포함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소명의식은 일과 관련되어 대체로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고용환경에 대한 기대 또한 높을 수 있어, 소명의식이 높은 사람이 자신이 처한 환경이 기대에 못 미치는 취약성을 가졌다고 각성할 때, 이직이나 직장 내 안녕감이 더 낮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9].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소명의식을 가진 미래의 보건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대학교육계의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명의식이 높은 전문가들의 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조직문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직업환경이 건전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개선되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명의식이나 일의 의미가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에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16,20]를 바탕으로 직무 관련 속성을 대학생

활적응으로 대신하여 확인한 결과, 일의 의미는 대상자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었다. 일의 의미를 측정하는 도구가 주로 “나는 의미 있는 진로를 찾았다”나 “내가 선택하게 될 일은 보다 큰 목적에 기여한다”와 같이 학생들도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는 했지만 직장인들에게서 다양한 직업 관련 요인을 통해 관련성을 보여주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 적응이 ‘직무’라는 요인을 대체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직장인에 비해 아직 직업준비단계에 있는 대학생에 있어서 ‘일의 의미’는 다룰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은 대학생 대상 연구가 부족하여 충분한 논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적으로는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과 필요 시 대상자특성에 보다 적합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도 추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태도성숙도, 소명의식, 일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사회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시점에서 지원열기가 높아진 보건계열 학과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소명의식과 일의 의미를 포함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다만 전공마다 임상실습이 매우 상이하하여 외생변수 통제 차원에서 실습경험이 없는 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점, 일 대학을 편이추출하였다는 점과 모든 분석이 자가보고식 설문만을 토대로 수행되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 소명의식과 일의 의미를 중심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진로태도성숙도와 소명의식은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학기 중에도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나 지난 학기 성적이 중위권인 경우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전면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일 대학의 1,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충분한 접근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보건계열 전공자들이 가지는 소명의식과 일의 의미뿐만 아니라 진로태도의 성숙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같은 요인이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할 수 있으리라 시도한 점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대학생활적응은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측면을 가지기 때문에 충분한 분석을 하기에는 본 연구 역시 부분적인

시도였으므로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다차원적일 수 있으므로 환경적 특성, 문화적 요소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는 표본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정교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계열 대학생의 일의 의미를 충분히 탐색하기 위해 포커스그룹과 같은 질적 연구가 수행된다면, 대학생의 미래 직업 관련 요인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보건계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 소명의식, 일의 의미와 같은 요인은 대학과정 중에 변화되어갈 수 있는 특성이므로, 이를 고려한 종단적 연구가 수행된다면 교육과정개발에 보다 효과적인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Lee KH, Han JC. Study on validation of career attitud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1997;8:219-255.
2. Song HS, Hong HY.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0;11(3):1325-1350. <http://dx.doi.org/10.15703/kjc.11.3.201009.1325>
3. Young RA, Valach L. The construction of career through goal-directed 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04;64:499-514. <http://dx.doi.org/10.1016/j.jvb.2003.12.012>
4. Park JH, Yoo SK.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work ho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lling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2;13(2):543-560. <http://dx.doi.org/10.15703/kjc.13.2.201204.543>
5. Dik BJ, Duffy RD.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009;37:424-450. <http://dx.doi.org/10.1177/0011000008316430>
6. Shim Y, Yoo S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K).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2; 24(4):847-872.
7. Peterson C, Park N, Hall N, Seligman MEP. Zest and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009;30:161-172. <http://dx.doi.org/10.1002/job.584>
8. Wrzesniewski A, McCauley C, Rozin P, Schwartz B. Jobs, careers and calling: People's relations to their wor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97;31:21-33.

- <http://dx.doi.org/10.1006/jrpe.1997.2162>
9. Serow RC. Called to teach: A study of highly motivated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1994;27:65-72.
 10. Elangovan AR, Pinder CC, Mclean M. Calling and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10;76:428-440. <http://dx.doi.org/10.1016/j.jvb.2009.10.009>
 11. Lee JY. The change of juvenile's work valu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06;25(3):163-181.
 12. Kim MA, Lim JY, Kim SY, Kim EJ, Lee JE, Ko YK.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04;13(4):383-391.
 13. Chang KM.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5;6(1):185-196.
 14. Duffy RD, Manuel RS, Borges NJ, Bott EM. Calling vocational development and well being: A longitudinal study of medica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11;79:361-366. <http://dx.doi.org/10.1016/j.jvb.2011.03.023>
 15. Duffy RD, Allan BA, Dik BJ. The presence of a calling and academic satisfaction: Examining potential mediat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11;79:74-80. <http://dx.doi.org/10.1016/j.jvb.2010.11.001>
 16. Dik BJ, Eldridge BM, Steger MF, Duffy R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and brief calling scale (BC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08;20:242-263. <http://dx.doi.org/10.1177/1069072711434410>
 17. Steger MF, Dik BJ, Duffy RD. Measuring meaningful work: The work and meaning inventory (WAMI).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12;20:322-337. <http://dx.doi.org/10.1177/1069072711436160>
 18. Lee JS, Seo YS. The relation between employees' job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Moderating effects of meaning of work and working environm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014;26(4):1109-1129.
 19. Kim HW.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patterns and career decision-mak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master's thesis].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5.
 20. Baker RW, Si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84;31:179-189. <http://dx.doi.org/10.1037/0022-0167.31.2.179>
 21. Jang JY, Lee J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 meaning, living a calling, life meaning, and job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4;15(1):259-278. <http://dx.doi.org/10.15703/kjc.15.1.201402.259>
 22. Jang SH, Yoo SK.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purpose/meaning, parental support and university senior job search behavior.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2014;35(1):1-17.
 23. Lee SH, Lee EJ. The influences of gender role identity, and gender role attitud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9;10(4):2137-2151. <http://dx.doi.org/10.15703/kjc.10.4.200912.2137>
 24. Koo HY, Park H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Its Predictor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5;6(2):373-385.
 25. Cho IY.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5):2937-2945. <http://dx.doi.org/10.5762/kais.2014.15.5.2937>
 26. Guo Y, Guan Y, Yang X, Xu J, Zhou X, She Z, et al. Career adaptability, calling and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f social work students in China: A career construction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14;85:394-403. <http://dx.doi.org/10.1016/j.jvb.2014.09.001>
 27. Yugo JE. The role of calling in emotional labor [dissertation]. Bowling Green: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2009.
 28. Sparks JR, Schenk JA. Explaining the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higher-order motives in multilevel marketing organizatio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001;22:849-869. <http://dx.doi.org/10.1002/job.116>
 29. Duffy RD, Dik BJ, Steger MF. Calling and work related outcomes: Commitment as a mediat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11;78:210-218. <http://dx.doi.org/10.1016/j.jvb.2010.09.013>